

송화강에서 룡이 솟구쳐... 민속과 야경이 어우러진 문화향연

—송화강 야간관광축제 행사 개막



길림시 송화강 야경

음력 2월 2일 '룡이 머리 쳐드는 날'을 맞아 길림시 송화강변에서는 징소리와 북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룡이 송화강에 솟구쳐 새 출발을 하다'를 주제로 한 송화강 야간관광 특별 행사가 성대히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송화강 야간관광과 '룡의 운치가 깃든 송화강'을 핵심 매개체로, 길림시의 '한 강, 두 강변, 세 산'이라는 독특한 경관 자원을 바탕으로 강성 주민들에게 전통 민속과 도시 특색이 융합된 봄철 문화관광의 향연

을 선사했다. 당일 오후 6시 30분, 힘차고 격양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강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개막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문 민속 팀이 선보이는 룡춤과 사자춤이 맨 먼저 등장했다. 기운차게 뛰어오르는 사자는 위풍당당했고 길상을 뜻하는 룡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올라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힘찬 북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송화강 량안에 퍼져나가 현장 관객들로부터 끊임 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변의 개막 공연이 끝나자 룡춤·사자춤 팀과 팽과리·북 팀이 모두 배에 탑승, 독특한 '수상 민속 대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격양된 북소리와 우렁찬 기적소리를 배경으로 춘도호 유람선과 유룡 참대때묵 편대(竹筏编队)는 삼도부두에서 동시에 출항하여 송화강을 따라 시정부 앞 광장 핵심 전시수역으로 평온하게 미끄러져 나아갔다.

선체의 찬란한 조명과 강성의 야경이 서로 어우러져 반짝이는 강물 위에 빛과 색채가 흐르는 봄철 강변 도시의

그림을 펼쳐보였다. 관광객들이 핵심 전시수역에 도착한 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졌다.

사자춤이 기운차게 춤추며 강인하고 힘찬 한동작 한동작으로 량안에서 관람하는 군중들에게 축복을 전했다.

룡춤도 동시에 등장하였다. 길상의 룡 두마리가 때로는 빙빙 돌며 모였다가 때로는 날아오르며 펼쳐지면서 강면에 울려 퍼지는 팽과리와 북 소리에 맞춰 현장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유룡 참대때묵 편대는 송화강 삼도부두와 송강중로 연선 수역에서 계속 순항하며 끊임없이 수상공연을 펼쳐 명절 경축 분위기가 강 전체에 스며들게 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특별히 송성호 유람선을 타고 송화강 민속 향연을 몰입감 있게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길상의 룡이 물결을 밟고 등불이 강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순간을 렌즈에 담았다.

"오늘은 2월 2일 룡이 머리 쳐드는 날인데 우리 길림시가 오랜 민속을 계기로 송화강 위에서 이렇게 훌륭한 전시 공연을 펼쳤습니다. 강 경치에 길상의 룡이 어우러지니 보는 사람의 마음이 흥겹고 고무됩니다."

가족과 함께 강변에 구경 나온 시민 왕씨는 "길림시는 강 경치도 아름답고 민속 취지도 진하다.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길림시에 관심을 가지고 강성의 독특한 매력을 느껴보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길림시 관광객들, 기차 타고 '향향·주해·오문' 봄나들이



관광열차에 승차하는 관광객들

3월 19일 14시 41분, 기적소리와 함께 2026년 첫 Y488편 '향향·주해·오문' 관광 전용열차가 길림역에서 서서히 출발했다.

열차에 탑승한 924명 관광객들은 13일간의 봄날 남녘 관광을 시작했다.

당일 오후, 길림역 플랫폼에서는 크고 작은 가방을 든 관광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승차하고 있었다.

일흔이 넘는 장씨는 "일찍 부인과 함께 향향, 오문, 그리고 계림의 산수를 보러 가고 싶었어요. 이 전용열차는 돌봄서비스까지 있어 우리 노인들에게 딱 알맞습니다!"라고 흥분하여 말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전용열차는 순수 관광단체로 일정에는 항주오대교 등 유명 관광지가 연결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해안도시의 변화함, 계

림 산수의 아름다움, 그리고 중원 고적의 오랜 역사를 만끽하며 광둥, 광서, 강서, 호남, 하남, 산서 6개 성과 향향·오문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저희는 세심한 서비스로 관광객들의 걱정이 더욱 편안해질길 바랍니다." 길림역 리객업무구역 보조기술자 양정여가 말했다.

전용열차에는 전문 시니어 단체 리더와 건강관리 전문가가 전 과정 동행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려정에 생일을 맞는 관광객을 위해 생일 축하 이벤트도 준비하였다. 열차 운행 기간 동안에 장기, 포카 게임대회도 조직하여 관광객들의 관광생활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가족이 안심하고 노인들이 편안한 여행을 실현할 전망이다.

/ 길림일보

전통 미덕 레절 강좌 길림문묘 백산서원에서



3월 15일, 길림문묘 백산서원에 는 글 읽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길림문묘 룩예자원봉사련맹 소속 명덕국학 교사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례거요》(常礼举要) 아동 레절 특별강좌를 함께 들으면서 전통 레절의 씨앗이 아이들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내리게 했다.

이번 활동은 '레절로 어린 마음을 적시고 덕으로 성장을 함께 하다'를 주제로 4세-12세 아동들을 위해 맞춤 제작되었다.

강좌는 30분 핵심 강의, 장별 해석, 지식과 실천 결합의 혁신적인 형식을 채택하여 《제자규》(弟子规)의 고전적 내포와 심층적으로 융합시켰다.

이들 통해 아이들이 레절을 배우고 알고 지킴으로써 밝은 덕을 갖춘 군자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강좌 시작과 함께 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상례거요》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며 '레절은 깊은 학문이 아닌, 일상에서 스며든 레절의 규칙으로 사람으로서의 기본 소양'임을 깨닫게 했다.

이러 교사는 《상례거요》를 장별로 해석하며 고전 문장을 리해하고 실천하기 쉬운 생활 규범으로 전환시켰다. 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듣고 꼼꼼하게 배웠다.

학습 과정에서 《상례거요》의 "자녀들은 아침 늦게 일어나지 않고 옷과 이불은 스스로 정리하며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안부를 묻는다."는 내용과 《제자규》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자지 않는다." "아침에는 반드시 세수하고 양치질도 함께한다."는 가르침이 서로 맞아떨어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묻는 좋은 습관을 길러 효심을 키우도록 아

이들을 가르쳤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 오면 반드시 얼굴을 보인다."는 내용은 외출 시 반드시 어른에게 말씀드리고 돌아와서는 안전함을 알려 가족이 안심하도록 아이들에게 당부했다.

장유유례(长幼礼仪) 단계에서는 교사가 현장에서 "어른이 물건을 주면 반드시 두손으로 받들어 받는다.", "어른 뒤에서 천천히 걷고 어른 앞에서 빠르게 걷지 않는다." 등의 동작 세부 사항을 시범보였고 아이들은 진지하게 따라 하였다. 그 동작 하나하나를 어른을 공경하고 겸손하며 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행동 자세와 식탁 레절 단계에서 언급된 "중 중앙에 서지 않고 문을 나갈 때 문턱을 밟지 않는다.",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때 따로 받침을 준비하여 혼자 먹지 않는다." 등의 규칙은 일상생활에서 서고 앉는 모습과 식사 시 나눔을 알고 편식하지 않으며 랑비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도록 아이들이 이끌었다.

수업시간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전을 랑독하였는데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서원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강좌 마지막에 아이들은 함께 "생활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처리하고 독립하며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거동을 단정히 하며 문명적이고 레의 바르게 행동하여 실제 행동으로 전통 미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길림문묘 룩예자원봉사련맹 관계자는 이번 레절 강좌는 고전을 토대로, 실천을 가교로 하여 중국 레절 문화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싹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길림일보

인기 드라마 속 길림시 옛 건축물들의 숨겨진 역사

벽돌로 쌓은 붉은 벽, 오래된 문장, 철교.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뜻밖에도 길림시 옛 철교와 옛 건축물의 기억을 환기시켰다.

드라마 속 촬영장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극 《외삼촌》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대학졸업생이 국영공장 기술간부직에서 실직한 후 창업하는 과정을 그렸다. 드라마중 많은 장면들은 영화 촬영 세트장이 아닌 길림시에 실제로 있는 옛 철교와 옛 건축물에서 촬영되었다.

이 건축물들은 드라마에 시대적인 배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길림철도 발전사와 근대 역사 변화를 고스란히 담은 살아있는 화석이기도 하다.

촬영지 안내

《외삼촌》1회의 최국명이 동림기계공장에서 업무를 보는 장면과 새로 부임한 진공장장의 사무실, 동림기계공장 회의실 모두 길림차무단 사무청사에서 촬영되었다.

소개에 따르면 이 건물은 '위만주국길림철도국' (伪满吉林铁路局) 사무청사 옛터로 장춘구 중강로 5번지



길림철도국 사무청사 내부 일각

에 위치해 있다. 드라마중 동림시공안국 외경은 이 사무청사의 정문에서 촬영되었다. 이 건물은 완공 이후 줄곧 철도운송 지휘 핵심기관으로 사용되었는데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길림 철도 관리기관의 변천을 증명해왔다.

건축물 이야기

1934년에 착공된 위만주국 길림철도국 사무청사는 9년에 걸쳐 준공, 동양식 건축양식을 채택하여 독특한

조형을 자랑한다. 1930년대에는 길림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당시 철도 기관의 중요한 위상을 드러냈다. 2007년 5월 31일, 이 건물은 성급 무형문화재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촬영지는 길림시 송화강철교이다. 드라마중 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 속 강철다리가 바로 이 다리이다. 이 다리는 1926년에 건설을 시작했는데 총길이가 443.78미터로 길림시 최초의 강을 가로지르는 인도·차량 겸용 다리이다.

역사의 증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두 건축물은 드라마 촬영지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 침략, 자원 약탈, 동북지역 철도 대동맥 장악 시도의 중요한 증거이다.

송화강철교는 길림과 돈화 철도선상의 핵심 교량이다. 1946년, 해방전쟁 기간 중국인민해방군이 길림에서 철수할 때 국민당 군대의 복상을 저지하기 위해 다리의 1번, 5번, 9번 교각을 폭파했다.

1948년 9월 7일, 송화강철교는 보수공사에 들어가고 같은 해 11월 15일 운송을 재개하여 동북지역 해방전쟁 승리를 위해 교통 보장을 제공했다. 2013년, 이 다리는 길림시인민정부로부터 시급 무형문화재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보존 현황

세월의 풍파를 겪은 옛 철교와 옛 건축물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보존되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위만주국길림철도국 사무청사 옛터는 길림차무단 사무청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송화강철교는 여전히 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길림일보

교하 농기계기업, 봄철 맞아 생산에 박차



작업장 현장

봄 농사철을 맞아 교하시봉상농업기계유한회사는 풀가동으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1분기 '출발부터 좋은 시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3월 12일, 기자가 찾아간 이 회사 생산공장에서는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용접 불꽃이 튀는 가운데 레이저 절단기가 정확하게 재료를 절단하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조

립라인에서 질서정연하게 농기계 장비를 조립하거나 시운전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소개에 따르면 봄 농사철에 대비해 이 기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문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기업의 2기 프로젝트인 새 공장과 부대시설 건설도 한창 진행중이었다. 교하에서 성장한 농기계 제조 기

업인 교하시봉상농업기계유한회사는 10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옥수수 수확기제품 라인을 단일 모델에서 철에 대비해 이 기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문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025년, 이 회사의 바퀴식 옥수수 수확기 판매액은 1억 4,500만 원을 달성하여 전국 3위를 기록했다.

/ 길림일보